

지역 소식통



완주산림조합 등, 화산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완주 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주 및 완주군산림조합은 27일 화산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산주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복지사업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완주 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10년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총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화산면 승지리, 춘산리 일원 971ha에 걸쳐 6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나드리 음식점
신풍동에 성금 기부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나드리' 음식점이 연말을 맞아 자립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35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현금봉투와 함께 전달된 손편지에는 "홀로 자립하는 청소년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다"며 "나드리 직원 및 손님일동이 힘을 모아 모금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날 후원받은 성금 135만원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취약계층 자립준비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진봉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성금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시청 사랑의 온도탑에서 이장협의회(회장 박용운)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박용운 진봉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희망2025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등 전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협의회(회장 양관용)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날 통장협의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및 장학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기탁했다.

그동안 통장협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관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숨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최적지”

국회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토론회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수소경제포럼,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도민일보의 주최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 및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연구책임의원 22명,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함께 했다.

이날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역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석유거래소 사례를 소개하며, 수소거래소 설립시

비싼 청정수소를 국제교역을 통해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수소법을 개정해 국제수소거래소의 설치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과장, 이정희 완주군청 수소산업담당관, 김재경 선임연구위원, 김지민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전략팀장,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이흥기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화학협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금융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 및 공급대 형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민 수소전략팀장은 수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한 시스템을 개발해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국제수소거래소를 통해 수소가격 투명성, 거래 효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수소경제포럼,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도민일보의 주최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정희 완주군청 수소산업담당관은 완주군이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명실상부 수소도시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과 공항, 금융도시 재지정,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더불어 완주군 국제수소거래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전북특자도가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서 문화·산업의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기준가

격 책정을 통한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소거래소는 전북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왔는데, 오늘 국회토론회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며 "작은 노력을 모아 큰 성과를 이룬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정신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
김제소방서에 소화기 기증

김제소방서는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가 화재 취약계층을 위해 소화기를 기증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소방서는 기증된 100만원 상당의 소화기 총 40개를 김제시 관내 화재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지면 모다아울렛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는 7개동 건물에 1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승준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장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취약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기증했다"고 말했다.

오승주 김제소방서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소화기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지역 주거약자 맞춤형 환경 개선 활발

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올해 39가구 개·보수 완료

완주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2024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39가구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절감과 방범시설, 주방·화장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택구조 및 수선가능 범위 내에서 대상 가구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하면서 만족도가 높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한도로 주택 출입로 보수·설치와 외부 화장실 개조, 출입문·바다 등 생활 필수시설의 개선을 지원해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한순철 건축과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기업하기 좋은 김제’ 내실 다지기 나서

김희욱 부시장, ‘기업-1공무원 기업전담제’ 협업회의 개최

김희욱 부시장이 지난 27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최우선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1공무원 기업전담제' 협업회의를 개최해 올 한 해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업회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담당급 1명씩 매칭하여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평선산업단지 투자기업인 (주)대승이 지난 27일 4천만원 상당의 김제쌀 구매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가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 및 앞으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보고 및 회의의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지난 11월까지 접수된 애로사항은 환경, 인력, 판로, 자금, 규제 개선 등 총 66건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접수됐으며, 안전 등 기타 사항들에 대한 민원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이전과는 다른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초에 시행했던 전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전담기업에 대한 근성이 유연해지고, 기업들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초기 단계지만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자리 잡은 기업전담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판로개척,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공무원과 기업에 대한 고령 운영을 통해 기업전담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꾀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실과소들이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기술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산업단지 내 ‘대승’, 김제쌀 소비 촉진에 앞장

김제시·농협 김제시지부·금남농협, 업무협약 체결 4000만원 상당 김제쌀 구매해 대승 전 직원에 전달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투자기업인 (주)대승이 지난 27일 4천만원 상당의 김제쌀 구매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가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평선산업단지 투자기업인 (주)대승이 지난 27일 4천만원 상당의 김제쌀 구매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가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대승 정세민 부회장, 조원석 농협 김제시지부장, 최승운 금남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김제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택에 분사를 둔 (주)대승은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김제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 관내에서 7개 사업장을 운영해 1,100여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구입된 쌀은 (주)대승의 전 직원에게 전달돼 김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게 된다.

앞서 (주)대승은 지난 2021년, 2022년 2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김제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 바 있다.

(주)대승 정세민 부회장은 "앞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지속적으로 김제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 서며,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시장은 "어느 연말보다 더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승그룹의 따뜻한 동행에 감사하다"며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김제 건설에 더욱 앞장서겠다(一念通天)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진읍 ‘얼굴없는 천사’ 17년째 선행

쌀 10kg 60포대·손 편지 남겨... 관내 선한 영향력 파급 ‘훈훈’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없는 천사'가 17년째인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지난 20일 아침, 용진읍 직원이 출근 길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놓여있는 쌀 600kg, 60포대(10kg)를 발견했다.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읍에서 출고 힘든 우리 이웃을 찾아 함께 동행하는 밝은 세상으로 꽃피우길 소망한다'는 손 편지도 놓여있었다.

지난 2008년부터 연말이면 쌀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의 기증한 쌀 양은 1만 200kg, 1,020포대(10kg)에 달한다.

'얼굴없는 천사'의 뜻을 이어가는 지역의 나눔도 활발하다.

용진읍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직접 쌀과 배추를 재배, 수확해 쌀과 감장김치를 나누고 있으며, 이달 4일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쌀 60포대(20kg)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 주길 바란다는 밀만 남기고 기증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용진읍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천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 내부 개발 현장, 영상으로 직접 본다

김제시, VR 영상 제공 서비스 제공... 시청 홈페이지·전광판 송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 내부 개발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 VR 영상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전북자치도에서 구축한 '새만금 현장보기' 기능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접목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물론 관내 홍보전광판을 통해서도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변화된 새만금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용방법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새만금' 메뉴 클릭 후

'새만금 현장보기'에서 원하는 지역의 내부개발 사업(20개소)을 클릭, VR과 노라마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아도 관내 전광판(쌀지공원, 김제역, 벽골제 등)을 통해 새만금의 현장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분歧화된 새만금 내부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전보다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MP 제수립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김제시 미래성

장을 견인할 새만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사업 착공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4년간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20.34km) 개통, 2023년 6월 스마트수변도시 매립(200만평) 완료, 2023년 7월 새만금 남북도로(27.1km) 전면 개통 등 속도감 있게 내부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7년 국립 새만금 수목원 개원 등 그간 추진해왔던 성과들이 가시화 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내달 오픈

완주군이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구축 완료로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조성업체인 (주)나인이즈 최상화 팀장의 강의로,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운영 이해와 관리 방법, 실습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는 완주군청, 아동복지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0

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내년 1월 중에 오픈 예정인 아동청소년 홈페이지는 민선 8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됐다. 홈페이지는 아동친화적 디자인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프로그램 신청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